

불심시심 (11)

옹색하지 않다.

내 이 암자에 살면서 나도 알지 못해

깊고깊고 좁고좁아도 옹색하지 않다.

하늘 땅 덮어 가두었으니 앞 뒤가 없고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도 집적이 없다.

吾住此庵吾莫識 (오주차암오막식) 深深密密無雜塞 (심심밀밀무잡새) 函蓋乾坤沒何背 (함개건곤몰하배) 不住東西與南北 (부주동서흥남북)

태고화상의 태고암가(太古庵歌)의 맨 앞 부분이다. 제목이 말하듯이 이는 태고화상의 자신의 암자에 대한 노래이다. 80 구나 되는 장편의 노래이다. 화상이 삼각산 중흥사(重興寺)의 동편에 암자를 짓고 이름을 태고암이라 하고 쓴 노래이다. 그의 제자가 지은 행장에 보면 태고라는 편액을 붙이고 긴 노래를 지었는데 아담한 곡조가 더욱 높아 아늑하게 들려주고 때때로 소나무 소리만 화답한다' 하였듯이 이 노래는 암자와 서로 어울릴 정도로 운치가 높았다.

태고화상이 중국에 가서 석옥(石屋)화상을 만나 이 노래를 알리니 노래의 내용이 더 비할 데 없이 훌륭하다 하면서 기뻐해 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래도록 내가 글 쓰는 일을 사할때 왔는데 지금은 붓이 솜을 주니 나도 모르게 이 노래 끝에 몇 자 쓰게 된다"하면서 시 한 수를 써 주었다 한다. 이것이 바로 시나 글이 사람 감동시키는 실상이다. 제고

장도 아닌 이국땅에서 말이 잘 통할 리도 없는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세계적 고승이라 할 수 있는 석옥화상에게서 이러한 칭찬을 받았다함은 그 당시 우리 스님들의 법력을 짐작하게 한다.

태고의 암자는 시간적으로 고금을 잇는 암자이다. 이 암자에 내가 살고 있다. 살고 있으면서 그 자체를 모른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진리이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바로 과거와 미래를 포용하고 있는 시간의 진리이다. 현재 자체에 갇혀 있는 과거나 미래인 언어나 길으며 좁은 공간인가. 그러나 옹색하고 느끼는 적이 없다.

육면체의 이 암자는 바로 위아래로 대칭되는 하늘 땅이요 그 자체가 바로 우주공간의 축소모형인 것이다. 여기 내 앞이 다 푸다 하는 자리매김이 의미 없는 일이고 육면체이거나 원형의 종류으로 한정될 공간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중찬(동국대학교수)

지방불자 예술인

“공동체 형성 시급하다”

지방화 시대의 문화포교 중추역 맡아야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문화 예술인들도 조직체를 결성,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자 예술인들은 상당히 많은데 비해 공동체적 활동조직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지역 불교예술활동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불교문화인협회, 문화예술인협회, 불교미술인협회, 동국미술인회 한국불교음악연구회등 다양한 모임이 형성된 것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는 부산불교문화인협회 유일 한 불자예술인의 단체로 꼽히고 있다.

이들 간의 불교계의 문화예술 활동이 중앙집중화 현상을 보여 온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방 대도시의 불자 문화예술인들로 지역에서의 활동무대를 넓혀야 할 것이라며 관계자들

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 문화예술인들이 장르별로 조직체를 결성하고 연합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산불교인협회(회장 김문숙)의 경우 매년 계간지를 통해 작품 발표의 기회를 가지며 자체 행사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에서의 미술 음악활동은 개인적인 무대와 전시회에 그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활약중인 음악인으로는 김성국(부산여전)교수, 무용가로는 이영희(경성대)교수가 꼽힌다. 또 이명미(포도)법고, 승무등의 무대를 통해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전통 불상 조각이나 단청·불화부문의 장인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 미술·음악·무용계에서 활동중인 예술인들은 '기회가 닿으면 모임을 만들겠다'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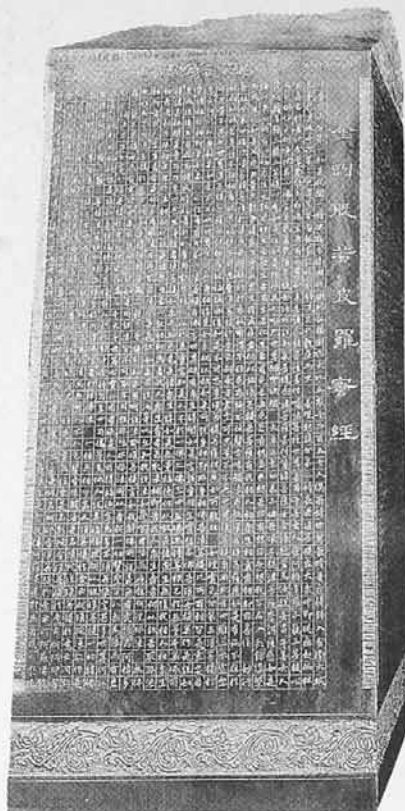
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역시 김동원(수필)씨를 문학분야와 고병식, 이은기씨를 음악인과 사계계의 현종화씨등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을 결속시킬 단체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도 관화의 김영만씨 문학의 김종 시인 수채화의 강연규씨 전통불화의 고영윤씨등이 활약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국악 분야에 많은 불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역에서는 조상현씨등을 중심으로 불자국악인모임의 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움직임은 없다.

원주에서 활동중인 최홍원씨(미술)의 경우 '지역 미술인들과 불교라는 공동체제를 통해 작품활동을 해 나가고 싶어도 뚜렷이 의사를 밝히는 작가가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원주

지역이 가톨릭,개신교의 세력이 워낙 강한 탓인 것 같으며 지방도시의 불자 예술인들이 결속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동국대 광주캠퍼스의 교수들이 문화 예술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개 서울에서 활동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도 김부건, 이종희씨등의 화가들과 진동규씨등 문인들이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뿐 연합체는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대전, 대구, 춘천등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에서 불자 문화예술인들의 활약이 보다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 불자들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불자 문화예술인들의 공동 작업과 작품발표의 기회 확대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연태기자>



정병례씨가 4각의 틀에 새긴 금강경.

정병례씨 전각 「금강경」전

3~12일 조계사 80점 출품·지방순회도

고암 정병례씨의 전각 「금강경」전이 3일부터 12일까지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법화인유' '화무소화' 등 금강경 반야심경을 틀에 전각한 8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정씨가 이번에 전시할 작품들은 단색이라는 전각의 한계를 회화적인 구성으로 극복, 오히려 다양함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또, 우주의 조화로움과 음악의 조화를 창상등의 소재

를 이용해 적절히 잘 표현해 주고 있어 독특하다. 작가 정병례씨는 "두번째로 갖는 이번 전시회에 공(空)으로써 집착의 굴레를 벗어나 아공을 얻으려는 불교진리 지향적 작품세계를 극명하게 나타냈다"며 "부처님의 승경을 직접 느끼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암전각예술회는 이번 조계사 전시에 이어 부산, 대구, 호남을 차례로 순회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앙박물관내 문화재 환수 서명 전개

원주문화원...국보 법화사지탑비등 7점

원주문화원(원장 박형진)은 오는 96년 원주박물관 준공에 맞춰 지역 문화재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7점을 환수하기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원주문화원은 오는 3월 (가칭)문화재환수추진위원회를 설치,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 환수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치는 한편 연말까지 서명을 받기로 했다. 원주지역 문화재가 환수될 경우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복원이 어려운 경우 내년에 완공될 박물관에 보존한다는 것이 원주문화원의 계획이다.

주지역문화재는 △국보104호 법화사지 지광국사현묘탑비 △국보104호 흥법사지 열거화상탑 △보물190호 원공국사승묘탑 △보물365호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부석관과 보물급인 진공대사탑 비 △보물358호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 2점 등이다.

영암 용암사지 정비

쌍계사 시방전도 국보 제 144호 월출산 마애여래좌상이 있는 전남영암 용암사지가 올해 정비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용암사지를 정비하기로 하는 한편 진도 쌍계사 시방전도 보수하기로 했다.

백제난민의 용화세계 꿈 그려

진동규씨 천불천탑 시극 「일어서는 들」



전남 화순의 운주사 천불천탑. 그 비밀스런 신앙의 흔적이 시극(詩劇)으로 구성됐다.

전주 신충중학교 교사이며 시인으로 활동중인 진동규씨가 최근 내놓은 시극 「일어서는 들」은 백제의 난민들이 화순 영구산에서 천불천탑을 조성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운주사의 천불천탑 조성을 백제 난민들의 용화세계에 대한 갈망의 작업으로 묘사한 것이 이 시극이 갖는 특징이다. 시인은 극의 형식을 빌려 난민들의 애환과 희망을 극적으로 이룰고 있어 작품전체에 종교적 구의와 역사적 본능이 적절히 융해되고 있다.

「일어서는 들」의 무대는 화순 영구산이며 시기는 백제의 마지막 항쟁시기로 설정됐다.

또 등장 인물들은 의자왕의 사랑을 받았던 원녀와 백제 미륵 신앙의 수호자 연화경, 무녀·경비대장, 난민, 병사등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로, 이들이 꾸며내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현실의 아픔을 미륵세상의 열락으로 승화시키려는 데로 모아져 있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어서는 들」은 신아출판사가 펴냈다.

PC통신 불교잡지 월간 「반야」 창간

컴퓨터 통신 불교잡지 「월간 반야」가 창간된다. 지난달 20일 창간준비호가 발간된 「월간반야」는 전라남 불교 동호회 회원들의 통신내용을 엮어 매월 출간될 예정이다.

「월간반야」는 천리안통신을 통해 교원된 불교교리, 경전강좌, 산사의 풍경소리, 선사열전을 해빙기 이후로 계획하고 석탑 박물관현상(부품이 떨어져나가는 현상)의 연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해나갈 방침이다.



자비의 음성공양 불교소년소녀합창단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제2회 정기발표회 지난 19일 한국일보빌딩 13층 연주실에서 열렸다. 총 47명의 합창단원이 박이제씨의 지휘와 민선희씨의 반주로 맞춰 연주한 이날 공연은 1, 2부로 구성, 소년소녀가장들의 휘자아래 성황리에 펼쳐졌다.

경천·원각사탑 문화재연구소 관리

예산 책정 안돼...전국 34개 석불 개보수

문화재관리국은 훼손이 심한 경천사·원각사탑에 대한 정형적 뒷받침이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재연구소는 현재 보호막 설치만 되어 있는 이들 탑에 대한 실태파악 및 보존대책 마련을 해빙기 이후로 계획하고 석탑 박물관현상(부품이 떨어져나가는 현상)의 연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개보수를 위한 예산 책정은 아직도 전무한 상태여서 정형적 뒷받침이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의 전체예산 중 각 부문에서 일부를 떼내 개보수 비용으로 마련, 보수작업에 총당량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보존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경천사탑은 2천원 중앙박물관이 전후 박물관내에 전시한다는

잠정적인 방안만을 세우고 있던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교계의 대책도 전무한 상태여서 불자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은 전국 34개 석불에 대해 97년까지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개보수작업을 실시한다. 보수를 요하는 1백18건 중 심의 책정된 34건의 석불은 안전해제 8건, 부분보수 24건, 검

이외에도 전남 영광의 신천리 삼층석탑, 전남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 경북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 등 5건이 더 안전해제보수의 시급함을 요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은 "충북 과산 미륵지 석불입상(보물 96호)과 전북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11호)을 검토대상으로 선정,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관리국은 금년에 청령사 회전문등 훼손상태가 심각한 문화재들을 조사해 개·보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필선기자>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간소한 인하여 동인 성원하여 주신 불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성실하게 인하여겠습니다. -수미산 가족 일동-

Table with columns: 여행번호, 방문지, 여행일정, 요금, 출발일. Lists various travel packages to India with details on destinations, costs, and departure dates.

INDIA Travelite (India) 인도관광성 인도전문여행사. Includes promotional text about the tour, contact information for SUMER TOUR CO., LTD, and a list of departure dates and prices.

Table with columns: 여행번호, 방문지, 여행일정, 요금, 95.1, 2월, 3월, 4월. Lists travel packages to South Korea with details on destinations, costs, and departure dates.